

심포지엄 참관기

The Report of the 39th Korea-Japan Professional Engineer Symposium

축구

제5회 한일기술사 친선축구대회



글 | 金聲勳
(Kim, Sung Hoon)

발송배전기술사
한국전력기술(주)
전기계측기술처(원), 차장

E-mail : donald@kopec.co.kr



▲ 제5회 한일기술사 친선축구대회 기념촬영

제5회 한일기술사 친선축구대회가 10월 7일(수) 인천국제공항공사 전용구장에서 개최되었다. 제39회 한일기술사 합동심포지엄이 지난 10월 7일(수)부터 10일(토)까지 인천에서 개최되었으며, 이 행사와 더불어 축구대회를 개최한 것이다. 한일 양국의 기술교류와 친선을 도모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친선축구대회는 매년 한국과 일본을 번갈아 방문하며 개최하고 있다. 한일기술사 심포지엄과 일정을 맞추어 한일 양국 청년기술사들이 주축이 되어 교류와 친선을 도모하고자 시작한 대회가 올해로 5회째를 맞이하게 되었다.

화창한 수요일 오후 한국기술사회축구단 회원들이 대회장소인 인천공항공사 운동장으로 하나 둘 모이고 있었다. 천연잔디가 잘 관리된 깔끔한 운동장이었다. 오후 3시부터 친선축구대회가 개최될 예정이었다. 우리 축구단은 사전 준비를 위해 미리 운동장에 모여 행사 진행을 위한 천막, 마이크, 프랑카드, 구급약, 음료수 등을 준비하였다. 첫 게임 참가 선수들은 운동장에서 몸을

풀고 있었다. 당일 오전에 인천공항에 도착한 일본기술사회 선수단은 호텔에 여장을 풀고 휴식을 취한 후 서서히 운동장에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다. 파란색 유니폼이 하나 둘 모이기 시작하더니 일본측도 준비운동으로 땀을 흘리고 있었다. 얼굴이 익은 일본 기술사들을 다시 만나 재회의 기쁨을 나누는 모습도 보였다.

작년 일본 니가타현에서의 4회 대회에서는 일본기술사회의 대규모 선수단 참여가 있었다. 그 날은 토요일이었다. 그래서였는지 선수단과 참여가족들 숫자도 상당했고 응원도 대단하였다. 아마추어 경기지만 한일전이다. 한일전 축구경기에서 자존심 상하고 돌아가면 어떡하나 내심 걱정이 있으셨던 당시 축구단 감독 홍홍표 기술사님 모습이 기억난다. 그 때도 일본 측은 동경, 센다이, 오키나와 등에서 선수를 영입하여 대규모 젊은피 수혈을 전국적으로 준비했고 4회 대회만큼은 자기들이 이기겠다고 버리며 e-mail로 우리측에 통보했던 기억을 더듬으며 사뭇 미소를 지어본다. 지난 4회 대회는 한국 측의 승리였다.



▲ 한국기술사회 이정만 회장님의 시축

우리 한국기술사회축구단은 단장 유해출 기술사님, 부단장 홍홍표 기술사님, 총무단 서영민, 이현동, 오대영 기술사님, 감독 이봉태 기술사님, 코치 김형중 기술사님 등 40여명의 회원들로 구성되어 있다. 2004년 11월에 창단된 이후 한국기술사회 홍보와 위상을 제고하고 회원 상호간 친목도모 및 건강증진을 위한 목적으로 꾸준한 연습과 경기를 통해 발전을 이루어 왔다. 그때문일까? 한일기술사 친선축구대회는 매년 한국 측의 우세가 확연히 눈에 띄었었다. 올해만큼은 일본 측도 만만치 않았지만 말이다.

드디어 오후 3시, 한일기술사의 친선을 도모하고자 하는 양측 대표의 개회사와 함께 기념 촬영도 하고 악수도 나누고 드디어 첫 경기 시작 호각이 울렸다. 모두 네 경기가 치러졌다. 선발 선수들에 의한 긴장감 있는 첫 경기는 일본 측의 우세였다. 국가대표 수문장인 이운재 선수를 닮은 일본측 골키퍼의 선방이 대단했다. 덩치도 어찌나 크던지 정말 프로선수 같았다.

두 번째 경기는 정말로 친선이였다. 나이드신 기술사 분들도 참여하여 열정을 다하는 모습이였다. 세 번째 경기는 양측 모두 선수 선발을 꼼꼼히 하는 모습이였다. 올해는 일본 측에서도 연습을 많이 한 모양이였다. 일본 측의 멈추지 않는 공격이 계속해서 이어졌다. 일본의 축구스타 나카다를 연상하게 하는 일본 측 청년기술사 에가와 치히로 선수의 공격이 계속해서 우리측 골문을 두드려댔다. 하지만 우리 기술사축구단에

도 국가대표급 골키퍼가 있었다. 바로 서영민 기술사님이다. 토요일이면 항상 검은 골키퍼 복장으로 무장하고 연습에 나오시는 분이다. 역시 철벽 수문장이였다. 네 번째 경기는 친선이란 이름으로 가장한 마지막 자존심 경기였다. 일본 측의 거센 공격이 계속되였다. 하지만, 그날 우리에게 숨은 복병이 있었다. 신예 권영빈 기술사님이였다. 어영부영 하는 것 같더니만 2골을 성공시켰다. 기뻐하던 모습이 눈에 선하다. 5회 한일친선 축구대회는 무승부로 결말을 지였다.

“기술사는 전문적 능력과 고도의 윤리관, 성실한 연구를 바탕으로 고객에게 신뢰와 안심을 주어야 한다.”라고 했던가? 우리 한국기술사회축구단이 그랬다. 축구경기에서도 전문적 능력, 윤리관, 성실이 모두 보였다. 본인도 축구단원임이 자랑스러웠다.

잊을 수 없는 역사적 앙금을 가지고 있는 두 나라의 교류가 우리와 우리 후세에게 어떤 모습으로 비춰질지 항상 생각해 보곤 했었다.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라는 말을 깊이 느끼고 살지는 못하지만 함께 살아가는 세상에 뭔가는 해야 할 것 같다. 거창한 말로 화해와 평화를 논할 수는 없어도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일을 찾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해 보곤 했었다. 작은 결론 중에 하나는 같이 가는 것이다. 깨지지 않고 같이 가는 것이다. 한일기술사의 친선축구대회와 심포지엄으로 양국의 교류와 친선이 계속해서 이어질 것을 기대해 보며, 더불어 또 다른 우리 주변국들과의 동행도 작은 기대를 해본다.

(원고접수일 2009년 10월 27일)



▲ 열띤 한일축구경기 전경